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

주간 ESG 뉴스 2026.04.17~2026.04.24

구분	시장 동향
Energy	● **재생에너지, 2025년 글로벌 전력 생산에서 석탄 추월** (2026.04.21, Bloomberg)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Ember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2025년 전 세계 전력 생산의 34%를 차지. 이는 1919년 이후 처음으로 석탄(33%)을 추월한 것으로, 전력 수요 증가분 전체를 청정 에너지로 충당
	● **터키, COP31 개최국으로서 청정에너지 전환에 초점 맞출 것** (2026.04.22, Bloomberg) 터키 환경부 장관은 11월 COP31 기후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역할을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에 활용할 것이라 밝힘. 또한 지구온도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배출량 감축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동 의제를 제안할 방침
Government	● **독일 총리, EU 기후정책 대응에서 산업 경쟁력 보호 우선 입장 피력** (2026.04.22, FT) 메르츠 독일 총리는 베를린 연례 기후회의에서 기후 보호가 산업 기반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EU의 무상 배출권 단계적 폐지 속도 완화 및 철강·시멘트 등 탈탄소화 취약 산업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촉구
	● **EU, 북극 석유·가스 시추 반대 입장 철회 검토** (2026.04.22, FT) EU가 2021년부터 환경보호 명목 하 북극 내 신규 석유·가스 시추에 대한 국제적 금지를 추진해왔으나, 현재 철회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남. 올 가을 북극 정책 검토 시 입장 완화가 공식화될 가능성 존재하나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
Corporations	● **Amazon, 인도 친환경 벼농사 지원 사업 추진** (2026.04.22, ESG News) Amazon이 인도 친환경 농업단체 Good Rice Alliance와 협력해 탄소제거 크레딧 68.5만개 이상을 확보하기로 결정. 기존 벼 재배에서 발생하는 메탄감축을 목표, 친환경 기술 도입 통한 메탄배출량 감축 및 농가 자금혜택이 예상되는 상황
	● **Shell, 석유·가스 시추 및 배출량 관련 신규 기후 소송 피소** (2026.04.22, ESG Today) 네덜란드 환경단체 Milieudefensie가 Shell의 신규 유전·가스전 개발 중단 및 2030~50년 단계적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후속 소송을 제기. 2024년 항소심 파기 판결 이후에도 기후 소송 리스크가 지속됨을 시사
Funds	● **일본 GPIF, 장기수익 제고 위한 스튜어드십 강화 촉구** (2026.04.20, Eco-Business) 일본 연기금 GPIF는 2025/26 스튜어드십 활동 보고서에서 ESG를 포함한 스튜어드십 활동을 장기수익 개선 관점에서 추진할 것이라 밝힘. 자본 효율성·지속가능성 공시·지배구조 개혁을 3대 우선 과제로 제시. 또한 2026 회계연도부터 외부 운용사에 대한 스튜어드십 성과 평가를 공식 도입할 예정
	● **영국 주요 연기금, 미국 LNG 터미널 건설에 £8B 투자 논란** (2026.04.22, TBIJ) 영국 주요 연기금 60곳이 미국 걸프만 연안 LNG 터미널 8개 건설에 총 £8B를 투자. 투자 경로는 Stonepeak, IFM 등 인프라 펀드를 활용. 터미널이 모두 가동될 경우 연간 EU 전체에 맞먹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추정. 탈화석 공약을 선언한 연기금조차 사모 인프라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화석연료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
	● **영국 Nest, BP 의장 재선임에 반대 의사 표명** (2026.04.23, Reuters) 영국 연기금 Nest는 BP의 기후 공시 후퇴 및 주주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의장 재선임에 반대할 계획. 기후 관련 주주결의안 배제, 기존 기후 보고 결의안 폐기 시도, 온라인 주주총회 전환 추진 등 주주권 및 기후 거버넌스를 약화시키는 이사회 조치 등에 근거한다 설명

자료: 언론보도, LS 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투자전략팀).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